



2024년 / 6월 1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6월 5일(수): 연구원 서고 정리
- 6월 5일(수)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6월 6일(목): 현충일 휴무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신규 후원회원 가입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 새 식구가 도착하셨습니다. 김재천 선생님과 안계혁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김재천 선생님은 서울에서 금융과 IT업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변주승 원장님의 오랜 벗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함께 수학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회원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안계혁 선생님은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화학공학과 학과장이십니다. 역시 변주승 원장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연구원 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업의 현장에서 자주 뵙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연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식구들의 마음을 오롯이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슬픈 현충일, 또 다른 과거 (1949. 6. 6)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되었다.

이보다 17년 전인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찰은 오전 8시 30분 중부경찰서장 윤기병 지휘 아래 경찰 80여명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사무실을 기습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조사서류와 집기들을 강탈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시경찰국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7월 6일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 반민특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 등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친일파 청산 작업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마침내 1949년 8월 22일 반민특위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전에도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을 해하고 있다"고 불멘 소리를 했다가 김병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독립지사를 검거하고 고문하는 등 악명높았던 친일경찰 노덕술의 경우 숫제 "정부가 보증하고 그를 풀어 주라"고 지시하고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잡아들이라 지시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결국 반민특위는 이날 이후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역사에서 사라진다.

75년 전 오늘, 일제강점기 제국의 주구였던 반민족행위자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려던 민인들의 여망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는 반민특위 습격으로 대응했다.